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발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28호 현대불교
2007년 5월 16일(음력 3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뜨구름 같은 이 환상천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두운 길을 밝혀 주실 부처님

문 산천초목의 푸르름이 온 산하대지를 생동감 넘치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만 전에 있었던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이라든지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파탄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니 말입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초파일은 다가와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어두운 저희들의 마음에 밝을 빛을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연등처럼 저의 마음을 밝혀서 시비하거나 간택하지 않고 부처님의 환희광명세계를 체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까요?

답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한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세상이란 좀더 우리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영원 불생불멸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불심을 좀더 돈독하게 가지시고, 진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부처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 삼 배를 올릴 때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몸이 내 몸이요 바로 부처님의 그 무한의 능력이 내 능력이기도 할 터인데, 내가 아프다면 바로 내 지극한 마음속에서 바로 의사가 나올 것이고, 바로 지극한 마음에서 가난을 물리칠 것이고, 지극한 마음속에서 유생 무생(有生無生)이 다 한마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말하자면 내 마음의 그 능력의 빛이 바로 세균의, 보이지 않는 세균의 모든 것을 뿌리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빛에 의해서 녹아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녹아 버리는 게 어떤 피해서 그것이 다시 몸이 화(化)해서 다른 경로 창조가 되기도 하니 죽이는 게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게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미물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역겁 전년부터 우리는 이 몸뚱이를 사람의 몸뚱이로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뱀의 몸뚱이나 거북의 몸뚱이나 소의 몸뚱이, 어떤 벌레의 몸뚱이, 역겁을 거쳐 오면서 이 몸뚱이 그 몸뚱이로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또 인간으로서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테 합쳐서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거쳐 온 것을 생각할 때에 나 아님이 어디 따로 있었습니까. 모두가 나입니다.

그래서 석존께서 짐승의 빠다구나 사람의 빠다구나, 여자의 빠다구나 남자의 빠다구나 여인의 빠다구나 어떠한 빠다귀를 막론하고 예전에 그 빠 무더기 있는 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짚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생자부(四生慈父)이신데 거기에 짚을 하나 이까?" 하니깐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역겁 전년부터 그 몸뚱이가 사람의 몸뚱이로만 가져온 게 아니니라. 저 몸뚱이가 뱀의 몸뚱이다 할지라도, 거북이의 몸뚱이 빠다귀다 할지라도 그 거북이도 어미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고 형제가 있었느니라. 우리도 역겁을 거쳐 올 때 그 모습의 형제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느니라. 부모도 고정되게 있지 않고 자식도 고정되게 있지 않고 형제도 고정되게 있지 않느니라."라고 말씀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짚단과 같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인연에 따라서, 자기 마음 쓰는 데에 따라서, 업보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한데 질서 있게, 업보를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지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적게 지은 사람은 적게 지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걸 모르겠결랑은 우리 세상을 잘 보십시오. 금방에 금이 있고 냄 마전에 냄마가 있고... 또 사람들 사는 걸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지계같은 지계대로, 그 외에 한 마디 더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질서가 지켜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만 볼 게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으로서 차원대로 질서를 이루어 가지고 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했다고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역겁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현실을 볼 때, 현실의 '참나'를 깨달을 때 비로소 역겁 전년부터 그 모습을, 수많은 별개의 모습, 짐승의 모습, 무정물의 모습을 내가 지니고, 거쳐 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아시게 된다면 아마 자기 생명만 생명으로 알고 남의 생명이라서 우습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느 한 생명도. 그래야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다른 생명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너 나 할 것 없이 겸손하게 대할 겁니다. 스님네들에게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렇게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겸손해진다면 아무렇게나 '저 스님은 저렇게 저 스님은 저



그림 · 최주현

래.' 하고 말을 해서 싸움을 붙이거나, 또 신도들끼리도 서로 말문을 전달해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렇질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물이 있고 불이 있고 흙이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쓰는 대로 바람이 일고 불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대로 우리가 업을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묵언하라!" 예전에 선조들께서 "묵언하라! 모든 잘못된 것은 안으로 돌려라!" 했던 거죠. 아주 괴로운 일이 있으면 '주인공, 당신이 일체 만법을 해 나가는 거고 당신께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고 바로 당신이 운전수며, 나는 차일 수밖에 없으니 당신께서 기쁨도 넣고 이 몸뚱이도 잘 지도해서 이끌어 가 달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는 마음이 가루하고 진실하다면 여러분도 바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다 놓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문 자식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가계의 문제도 다 놓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매사 것이 걱정이고 신경이 쓰입니다. 스님 말씀처럼 내 근본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산다면 이렇게 속을 풀이지도 않을 것이고 몸도 건강할 텐데 다 놓지 못해서 그런지 소화가

잘 안되고 짜증도 나고 짜증이 나면 가족들에게 퍼붓게 됩니다. 스님, 다 놓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답 여러분은 그냥 그저 참나 참나 살면서 응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아주 설거지를 하면서 탁탁 치워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난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다 놓으면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놓고 가면서도, 돈을 한 묶음을 쥐고 가더라도 그건 놓고 가는 겁니다. 금방 쥐고 있다고 해서 고정되게 그냥 그것만 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갖다가 놓습니다. 장 속에 넣든지 은행에 갖다 넣든지 증권에 갖다 넣든지 어디다 갖다 놓든지 하여튼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놓고 가는 겁니다. 관리만 했다 뿐이지 놓고 가는 겁니다. 내 품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놓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놓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바뀌어 생각을 할 때 내가 음식을 먹고, 먹고 싶은 대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러면서 이것도 소화가 되고 저것도 소화가 돼야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이 잔뜩 고여 있으면 좋겠습니까? 소화가 되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화를 시켜서 스스로 소화가 된다는 거, 먹고 싶어서 우리가 먹으면 스

스로 소화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하고, 또 소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 공장에서 모두, 이걸 우스갯소림이던, 위장이던 간장이던 직장이나 소장·대장·방광·이자 이런 모두가, 심장이나 하는 모두가 공장에서 회전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소화를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듯이 '모든 것은 한 마음 주인공에 보라!' 이겁니다. 거기다 딱 일임을 해라 이겁니다. 어디 신호가 왔다, 아프다 그런다면 이거를 거기다 딱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팠거든요, 이 몸에서, 그 자리에서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호가 온 겁니다. "지배인, 이렇게 여기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아! 그럼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공장장이고 뭐고 다 이거는 서로 한마음으로 돌아가면서 파업을 막아라!" 하고서는 거기 주인공에다 탁 놔단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건 한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업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대처를 해야 금방 건강이 되찾아지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가슴이 아픈데도 여기 이 형성시킨, 여기서 회전하고 있는 공장에도 맡겨질 않은 편 공장으로 가요. 편 공장으로 가서, 이 마음의 도리를 서로 벽이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갖다가 맡기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온 줄도 모르는 병세가 많고 유전성이란가 업보성이라든가 영계로 인해서, 인과로 인해서 나오든가 또는 몸에서 솟든가 이러한 것도 누구냐가 다 이것을 알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가 모자란다고 봐야죠. 70%는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이 총량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70%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00% 다 가져왔지만, 우리가 외관상 부러지거나 어디 잘못되거나 이러한 편 기술자를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0%를 가지고 쓰되 100%를 다 가져와. 왜? 의사의 손이 가더라도 그거는 남의 손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도리를 알면.

옛날에 선해보살(善慧菩薩)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은 너무도 착하고 어질고, 행을 너무도 참 정화하고 밝고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대로 이익을 주고, 아픈 사람을 보면 간호를 해 주면서 항상 마음을 위로해 주고 내 아픔같이 생각해 줘서 건져 주시고, 또 약한 자를 보면 약한

22면으로 계속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를 위한

2007황금돼지해 으아! 김홍국 디너쇼

인사말씀

그윽한 향내음따라 웃음과 기쁨 전하는 호랑나비되어 여러분 곁으로
훨훨 난지 20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더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 성원에 보답코자 합니다.

그동안 가수로서 방송인으로서 때로는 개그맨으로 함께 해온
제가 여러분 곁에 조금 더 다가가고자 정성껏 Dinner Show를 준비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귀한 시간 내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으아! 행복합니다.
김 홍 국 손모음



· 현재 tbs FM95.1MHz(오후6시~8시)
'김홍국·정연주 으아! 행복합니다' 진행

- * 일시 : 2007년 5월 18일(금) 오후7시 * 장소 : 리베라호텔 베르사이유홀(3층) ☎ 541-3111
- * 주관 : 김홍국을 사랑하는 모임
- * 후원 : (사)대한가수협회 · 해병대중앙회 · 대한민국축구사랑모임 · 김홍국장학재단
- * 협찬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티켓구입문의 : (02)713-2905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국 1103호

동참후원금 150,000원

